제26-13호 | 2026.04.13.

IMO 소식 & 국제해사동향

해양수산부
KMC 한국해사협력센터

01 IMO 소식

IMO 사무총장, 호르무즈 해협 대응 관련 국제 공조 강화 필요성 강조

(출처 : IMO, '26.4.2)



IMO 아르세니오 도밍게스 사무총장

- IMO 사무총장은 2026년 4월 2일 발표를 통해, 호르무즈 해협 위기 대응에 있어 분절적 대응을 지적하고 외교적 협력과 실질적 해상 조치를 병행할 필요성을 강조함.
  - ▸ IMO 아르세니오 도밍게스 사무총장은 영국 외교·영연방·개발부(FCDO)가 주최한 40여 개국 외교장관 대상 화상회의에서, 호르무즈 해협 상황과 관련해 항행의 권리와 자유가 존중돼야 하며 선원의 안전과 복지가 최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함.

▸ 이어 군사적 접근만이 아니라 긴장 완화, 외교적 해법, 그리고 중립적이고 실무적인 해상 조치가 함께 필요하다고 밝힘.

- IMO는 2월 말 분쟁 발발 이후 상선 공격과 선원 피해가 누적되고 있어 인도주의 대응이 필요한 해사 현안으로 다루고 있음.

  ▸ 사무총장은 해당 해역에서 선박 및 선원에 대한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, 국제법에 따른 항행의 자유(freedom of navigation)와 선원의 안전 확보가 최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함.

- IMO는 지난 3월 개최된 특별이사회(C/ES.36) 논의를 토대로 선원 대피와 선박 이동을 위한 안전항로 체계(safe maritime corridor) 구축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음.

  ▸ 현재 관련 연안국들과 협력해 페르시아만에 고립된 선원들의 대피를 지원할 수 있는 "안전항로 프레임워크 개발" 구축 가능성을 논의 중임.

  ▸ 이 과정에서 연안국 협력, 보안 보장, 운영 조정을 핵심 요소로 제시했으며, 이를 통해 선원 교대, 인도적 지원, 해양사고 및 환경위험 예방을 위한 핵심 조치를 함께 검토함.

- IMO는 회원국, 연안국 및 해운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다자 협력 기반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음.

  ▸ IMO는 회원국 정부 및 연안국과 협력하여 대응 방안을 조율하는 한편, 해운업계 및 관련 국제단체와의 정보 공유를 통해 실질적 대응력을 높이고 있음. 이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상황을 국제 협력 기반에서 관리하려는 방향성이 강화되고 있음.

IMO 공지

[기타 공지]

○ (사우디아라비아) 아라비아해·오만해·걸프 지역 해운 및 선원 지원 이니셔티브 통보 (CL.5159, '26.3.30.)

▸ 사우디아라비아는 제36차 특별이사회(C/ES.36) 결정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인근을 포함한 아라비아해·오만해·걸프 지역에서 해운 및 선원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자국의 지원 조치 및 이니셔티브를 IMO에 통보함.

▸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해 서해안 항만 도착 컨테이너를 육상 운송으로 GCC 국가까지 연계하는 '통합 물류 회랑(Integrated Logistic Corridors)'을 운영하고, 항만청·관세청·사우디아카고 간 협력을 통해 '해운-항공 연계 물류 회랑(Sea-Air Logistics Corridors)'을 구축하여 화물 이동의 연속성을 강화함.

▸ 또한 사우디 항만청(Mawani)은 걸프 지역 내 '고립 선박(Stranded Vessels)' 지원을 위해 생필품 공급, 선원 교대 등 14개 이상의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으며, 사우디 교통청(TGA)은 선박 안전운항 유지를 위해 항해 관련 증서 및 취업 허가 갱신에 대해 30일 단위 유예(waiver) 조치를 도입함.

▸ 부속서에는 기국 및 항만국 간 신속한 운영 조정을 위한 담당자 연락처와 함께, 사우디 동해안 항만에서 운영 중인 선박용품 공급업체((Ship Provisioning Service Providers) 목록이 포함되어 있음.

02

국제해사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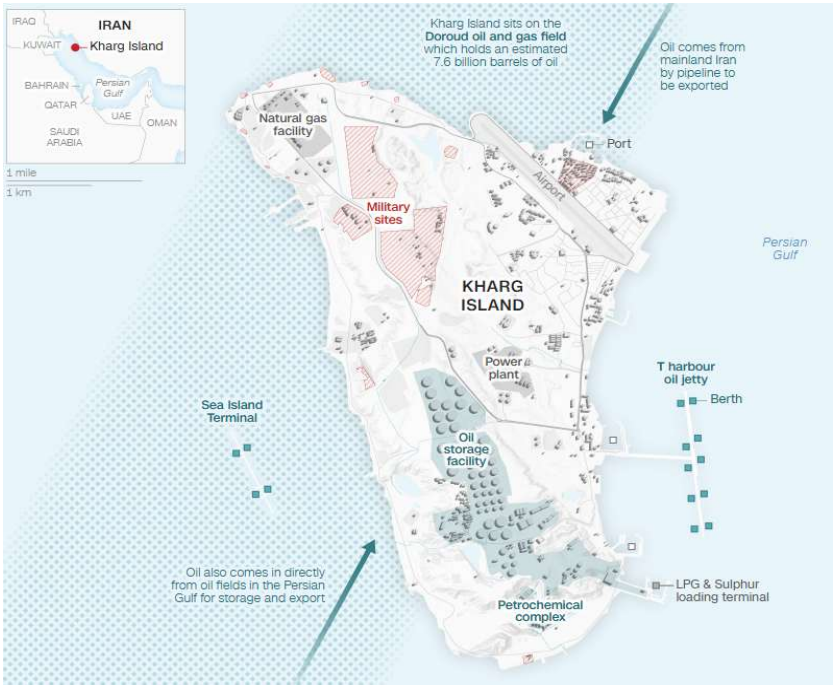
미국, 카르그섬 공습 후 조건부 휴전 합의… 해상 운송 리스크 완화

(출처 : CNN, '26.4.8.)

- 미국은 2026년 4월 7일 이란 카르그(Kharg)섬 군사시설 공습과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 개방 및 전쟁 종결을 요구하는 미 동부시간 20시 협상 시한을 제시한 이후, 해당 조건을 기반으로 이란과 2주간 휴전에 합의하며 군사·외교 압박을 병행하고 있음.
  - ▶ 미국은 4월 7일 밤 사이 이란 전략 거점인 카르그섬의 군사 목표물을 실제 타격했으나, 석유 수출시설은 의도적으로 제외한 것으로 확인됨.
  - ▶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은 이란에 대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전쟁 종결을 조건으로 미 동부시간 오후 8시까지 협상에 응할 것을 요구하며 사실상 시한부 최후통첩을 제시함.
  - ▶ 이후 미국과 이란은 해당 조건을 기반으로 2주간 휴전에 합의하였으며,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선박 통항이 유지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가운데 파키스탄 중재로 오는 10일 이슬라마바드에서 후속 협상이 예정됨.

- 미국은 카르그섬 공습 시 석유시설을 제외하고 군사시설만 선택적으로 타격함으로써 에너지 공급망 충격을 최소화하는 제한적 군사 전략을 유지하였으며, 이후 휴전 합의 발표와 함께 국제유가는 하락세를 보이는 등 시장 불안이 일부 완화되는 양상 나타남.

- 카르그섬과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 원유 공급과 글로벌 해상 운송을 연결하는 핵심 구조로서 전략적 요충지임.
  - ▶ 이 지역은 이란 원유 수출의 약 90%가 집결·처리되는 카르그섬과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%가 통과하는 핵심 해상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구조적으로 연계된 형태로, 생산·저장·수출과 해상 운송이 결합된 에너지 공급망을 형성하며 글로벌 해운 및 에너지 시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.



이란 카르그(Kharg)섬

- 군사 충돌 격화는 에너지 가격 급등과 해상 운송 리스크 확대에 따라 글로벌 해운 및 에너지 시장에 직접적 충격을 유발하고 있음.
  - ▶ 전쟁 발발 이후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은 약 39% 상승하고, 항공유 가격은 약 94% 상승하는 등 에너지 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됨.
  - ▶ 호르무즈 해협 개방 여부와 연계된 긴장은 유조선 운항 불확실성과 전쟁위험 보험 상승 등 해운시장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함.
  - ▶ 휴전 발표 이후에도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 이동은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, 선주 및 보험사들은 추가적인 안전 보장 조치가 확인되기 전까지 운항 재개를 유보하는 상황임.

네덜란드, 해상 전력 입찰구역 신설 및 국제 전력망 연계 추진

(출처 : Offshore Energy, '26.4.7.)

- 네덜란드는 북해 해상풍력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신규 해상 전력 입찰구역을 지정하고 국제 전력망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.
  - ▶ 네덜란드 정부는 자국 북해(North Sea) 해역 내 신규 해상 전력 입찰구역을 설정하고, 향후 구축 예정인 국제 해저 전력망(interconnector)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.
  - ▶ 해당 구역은 발전 기능을 넘어 전력 송·수출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며, 인접 유럽 국가들과의 전력망 통합을 전제로 하는 점이 특징임.

- 네덜란드는 해상풍력과 국가 간 전력망을 결합한 '하이브리드 인터커넥터' 기반 에너지 허브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.
  - ▶ 해당 구상은 해상풍력 단지를 복수 국가 간 전력 교환이 가능한 허브로 활용하는 구조로, 유럽연합(EU)의 북해 전력망 통합 정책과도 연계됨. 이에 따라 북해를 중심으로 한 초국경 전력 네트워크 구축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.

- 국경 간 전력 거래 확대는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과 에너지 시장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.
  - ▶ 풍력 발전의 간헐성을 국가 간 전력 교환을 통해 보완할 수 있어 수급 균형 유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, 전력 가격 안정화 및 공급 리스크 분산 측면에서도 효과가 기대됨.

- 해상 인프라 확대는 해저 전력망 투자 증가와 해양 공간 이용 조정 필요성 확대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음.
  - ▶ 해상풍력 단지와 함께 해저 케이블 및 해상 변전 설비 구축이 병행되면서 관련 인프라 투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. 동시에 북해 해역 내 기존 항로와의 공간 중첩 가능성이 확대됨에 따라, 해양공간계획(MSP) 및 항행 안전 관리 필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음.